# 뿌리 넘은 나무

## (마21:33-46)

33.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40.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뿌리 넘은 나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선조와 광해군 시절 병조판서와 우의정을 거쳐서 영의정까지 지낸 백사 이항복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항복이 어렸을 때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항복의 집 안에 감나무가 큰 게 서있습니다, 감나무가 담장에 바로 붙어 서있는데, 그 담장

너머는 유명한 권율장군이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항복의 집 감나무가 담을 넘어서 권율장군의 마당에까지 가지를 뻗게 됩니다.
담 너머 권율장군의 마당까지 뻗어간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감이 해마다 많이 열리는데 감나무에 달린 감들을 권율장군의 하인들이 다 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이항복이 '어떻게 하면 저 담 너머로 간 감들을 우리 것으로 찾아올까' 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권율장군이 집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권율장군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대감이 있는 방의 창호지 문을 손으로 쳐서 불쑥 내밀었습니다.
안에서 깜짝 놀랐겠지요, '이게 대체 어인 일이냐?'고 묻는 권율장군의 물음에 대해서 이항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감, 이 팔이 뉘 것입니까?' '아, 이놈아, 그것이 네 것이지 누구 것이란 말이냐?'
'아니, 이것이 어떻게 내 것입니까? 대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팔이 대감의 것이지 어찌 내 것이겠습니까?'
'아, 그래도 네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집 감나무가 가지를 뻗었다고 해서 대감댁 하인들이 마음대로 우리 감나무의 가지에 열린 감들을 따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네가 옳다' 그리고 딴 감들을 하인들에게 명해서 다 돌려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권율장군이었다면 '그래 이놈아, 그러면 한번 너희 집 마당에 있는 그 감나무를 파보자, 감나무의 뿌리가 담 밑으로 해서 우리 마당으로 들어왔다면 그 뿌리의 가지가 넘어온 수만큼은 우리가 감을 따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담을 넘는 것은 위로만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 밑으로도 뿌리가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뿌리 넘은 나무.
가지 뻗은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뿌리 넘은 나무의 상태까지도 살펴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것에 이어서 같은 이야기에서 초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영원의 빛이라고 할 때, '**영**원의 빛, 영**원**의 빛, 영원**의** 빛, 영원의 **빛**' 이런 식으로 액센트

를 바꿔가며 게임하듯이 강조점을 다른 곳에 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수다, 정말 네가 가수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가수는 노래를 하는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돈이나 명예나 인기 이전에 이미 노래 자체로만 충분히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인기나 명예, 돈,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노래 자체가 충분히 행복의 근거가 되고 기쁨의 근거가 되는 자가 진정한 가수요, 돈을 위해 명예와 인기를 위해 노래를 한다고 그러면 그는 가수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다 적용되고, 성경본문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비즈니스 제사장이 있고 참 제사장이 있을 수가 있다. 왜?
제사장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허락받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렸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허락된 특권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만인제사장설이 통용되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적용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대면하는 하나님만으로 완전히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돈 벌고, 형통하려 한다면 비즈니스 교인, 비즈니스 목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비즈니스맨이다'라는 부분에 조명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맨이라고 우리는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건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너무 좋게 얘기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완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서 만족하려고 한 그것은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강도고 도둑놈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가수가 노래하면서 돈을 벌려고 그랬다면 그건 도둑가수고 강도가수다 이겁니다.

그렇게 강도라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는 또 하나의 비유를 덧댑니다.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다, 강도나무다 이거죠.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작농들이 소출기가 되어서 열매의 소출을 얻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결국은 아들 예수님까지도 죽여 버리고, 상속권자인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강도짓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나무로 비유해요, 이런 강도짓을 한 나무, 강도나무입니다.
어떻게 해서 강도나무가 됩니까?
강도나무가 되는 길은 어떤 형국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겁니다.
뿌리를 넘어간 것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담 밑으로 뿌리가 넘어가버리면 강도나무가 됩니다.
권율장군 집으로 뿌리가 엄청나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마당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감을 맺은 것이에요.
그런데 다 도로 갖고 가버렸습니다, 권율장군 집에서 딴 감을 싹 다 갖고 가버렸어요.
이게 남모르는 강도짓이지요, 이항복이 남모르게 강도짓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무에 비유되려면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떤 나무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뿌리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마음이 뻗어갑니다, 무엇인가를 향해 뻗어갑니다.
제1현실감을 말할 때 실재나 사실에 마음이 뻗어가는 것을 말했어요.
제1현실감이 마음의 뿌리가 뻗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마음이 공중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차원이 있고, 공중 아래는 땅의 차원이 있는데, 이 몸이 바로 땅의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에 있는 마음이 절대로 뿌리를 넘어서 내리면 안 되는 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육체가 있는 이 땅의 세계로 뿌리를 뻗어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공중에 있는 마음이 몸이 속해 있는 이 땅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몸에 먼저 마음이 뿌리를 내려서 닿고, 그리고 몸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 몸을 통하여 만나는 물건, 사건, 상황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양분을 빨아들여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피자 먹고 있는 어린 딸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는 아빠, 이거 지금 강도짓 하는 거라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뿌리는 위로 하나님께로 뻗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뿌리를 내린 곳에서 사람은 기쁨을 자양분으로 흡입하려 합니다.
만족을 자양분으로 흡입하려 합니다, 행복을 자양분으로 흡입하려 합니다.

돈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돈을 벌어서 기쁨을 얻으려 합니다.
피자 먹는 딸을 보며 기뻐하는 아빠는 마음이 몸으로 와 닿았고 몸에서 뻗어나가서 딸에게 미친 겁니다.
마음의 뿌리가 딸에 닿으면 딸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만족을 얻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딸로부터 기쁨을 흡입해 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도짓이라는 겁니다.
딸은 내가 그곳에서 기쁨을 빨아들여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마치 권율장군의 집 밑으로 들어간 뿌리에서 빨아들인 자양분으로 맺은 열매를 다 자기가 가져간 것처럼 딸은 내가 절대로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기쁨을 얻어도 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버려요, 그것으로부터 기쁨, 행복, 만족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의 뿌리가 몸을 통하여 뻗어나가서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몸이 있는 땅 쪽으로는 담으로 막혀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만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을 얻어내야 되는데, 마치 대나무뿌리처럼 어마어마하게 길게 길게 길게 이 세상의 것들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잡아 죽인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지

금 마음이 공중에 있으면서 몸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몸을 통과해서 몸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과 사건, 사물에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남의 자동차를 갖고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까, 왜 남의 집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갖고 내가 배 불리려 합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마음의 뿌리를 거기에 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곧 마음의 뿌리가 거기에 닿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의 뿌리가 가 닿아도 괜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들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그거 놓아라, 너희 것으로 허락된 것은 천국, 하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민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해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이외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오직 우리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생명과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으로만 기쁘고 만족하게 될 때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이라는 얘기는 복으로 기쁨을 누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행복하고 기뻐진 자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일컫는 일들 쯤은 얼마든지 식은 죽 먹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복으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딸을 보고 기뻐하면서 계속 싱글벙글 웃습니까? 이게 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자 먹는 딸을 보고 웃고 있는 두 아빠가 있어요.

한 아빠는 딸에게 뿌리를 내린 아빠, 웃는 모습은 똑같아요.
한 아빠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아빠, 그런데 이 아빠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웃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 웃으면서 딸을 보는 아빠,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딸에게 피자를 사주는 행위의 열매를 맺는 아빠, 하늘나라 열매입니다.
그런데 딸이 예뻐서 피자를 사주는 아빠, 그 피자를 먹는 딸이 좋아서 웃고 있는 아빠, 이건 강도이고 도둑이에요.
왜 딸에게서 기쁨을 얻느냐 이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왜 남의 마당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다 내 것이라 말하느냐 이겁니다.

뿌리 넘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딸에게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뿌리 넘은 나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업에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사업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면 뿌리 넘은 강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공중에 있는 마음은 위로 하늘로 뻗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만인이 예외 없이.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진짜 가수로 여겨지는 그런 마음가짐의 어린 아이유라는 아가씨조차도 끝내 노래로 만족한다고 하면 강도짓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학문연구가 즐거운 교수님도 하나님으로 즐겁지 않고 학문연구로 즐거우면 궁극적으로 강도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강도로 살고 있고, 뿌리 넘은 나무로 살고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 담장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으로 몸으로, 마음이 내려와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 마음이 몸으로 내려와서 닿고 몸을 통해서 뿌리에 가지를 뻗어갑니다, 사방으로 뿌리를 뻗어내려 가는 겁니다.
이 뿌리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의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가 뿌리를 내려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가족, 부모, 자식, 형제자매, 아니면 내 사업,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뿌리가 끊어지면서 주님의 부활을 따라 내 마음이 부활하고, 주님의 승천을 따라 내 마음이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마음으로 뽑아서 하늘로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강도나무와 하늘나무가 있습니다.
강도나무는 공중에 있는 마음의 뿌리의 근원이 몸으로 뿌리내려서 몸을 통해 가지를 뻗는 것을 말합니다, 뿌리가 넘지 말아야 될 담 밑으로 넘어온 것이에요.
뿌리 넘은 나무가 강도나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교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땅으로 넘지 말아야 될 담을 밑으로 넘어 들어온 뿌리들을 끊어내고 하늘로 뿌리를 내리게 해서 하늘나무가 되게 해주는 사건이고 하늘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기쁨을 머금은 채 만족과 행복을 머금은 채로 자식을 어루만지고, 사업장으로 나가 사업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목 놓아 십자가에 달릴 것을 각오하시면서 전달해 주는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뿌리 넘은 나무를 십자가로 죽이고, 하늘로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넘지 말아야 될 담을 밑으로 넘어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살아 부활한 마음이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기쁨을 이미 머금고 그 일들을 대하는 하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